

민주노총 광주·전남 총파업 긴장 고조

오늘 광주시청·전남도청 앞 수천 명 모일 듯

방역당국·경찰, 불법 적발시 엄정 대응 방침

광주·전남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대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과 방역당국이 바빠 긴장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광주본부 산하 각 노조는 20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10·20 총파업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불평등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기치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대회는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대회사, 연대사·투쟁사 발언, 영상·공연,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대시민 홍보 행진을 더해민주당 광주시당 앞까지 펼친다.

대회에는 각 산별노조 소속 광주 지역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

상했다. 경찰도 최소 2000명 이상이 대회 현장 주변에 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도 전면 파업, 부분 파업, 현장노조 교육·총회 등 형태로 동참한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같은 시각 전남 무안군 삼향읍 도청 앞에서도 조합원 4000여 명(추산)이 모여 총파업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 등 해고 금지 등 일자리 국가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에게 총파업 방역지침을 전달,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대회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 정부 코로나19 방역지침이 경기장, 결혼식장 등 집합 인원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유

독 집회만 제외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시·도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감염 재확산 우려가 높다고 판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열 수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집합 인원 포함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여는 집회는 인력·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참가자가 모이는 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길 경우 체증을 거쳐 집회 참가자는 형사 고발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할 경우엔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경찰도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 지원한 기동대를 제외한 가용 경찰력·장비를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를 중심으로 비상 대기 근무조를 운영,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이 적발되면 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기동취재본부



바쁘다 바빠, 분주한 들판

주말 불어닥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진 지난 17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들판이 약한 비 예보에 서둘러 벼수확에 나선 농부들의 움직임으로 부산하다.

“김장대전 시작” 해남미소에서 절임배추 예약하세요



해남배추 홍보하는 명현관(오른쪽) 해남군수.

사전예약 10~20% 할인...경품 이벤트도 실시

받을 수 있고, 김치 양념도 함께 주문할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김장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다.

절임배추 10kg 기준 김치양념 3.5kg이 필요하며, 김장김치는 전라도식과 경기도식 2종으로 판매된다. 전라도식의 경우 젓갈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모든 양념의 재료는 100% 국내산으로 만들어 제공된다.

해남군은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11월15일 이후 김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랭지 배추에 비해 해남배추는 70~90일 동안 충분히 키워 속이 짝 차고, 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서리를 맞으면서 단맛이 강해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품 배추로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날이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커질수록 배추속이 단단해지고, 특유의 단맛이 살아난다”며 “배추가 맛있어야 김장이

맛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김장시기를 11월 중순 이후로 늦추고, 사전 예약을 통해 좋은 원재료를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 절임배추 주문을 원하실 경우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와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해남미소 또는 해남군청을 검색하면 쉽게 주문하고 구입할 수 있다.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20명씩 총 200명을 추첨, 무항생제지고기(1kg), 쌀(10kg), 고구마(5kg) 등 푸짐한 농수특산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갖는다.

해남군이 직영하는 해남미소 쇼핑몰은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위탁 판매하고 있는 공익형 쇼핑몰로 현재 356개 농가에서 1500여개 농수특산물에 등록돼 있으며 올해 12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뒤죽박죽 대출 시장...체계 다 깨졌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출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속된 가계대출 조이기로 금융시장에서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통상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규제가 겹겹이 쌓이며 주택담보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 금리는 3.03~4.67%(신규 코픽스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3.18~4.43%(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으로 집계됐다.

또 은행을 향한 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2금융권인 지역농협의 신용대출 금리가 1금융권인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현

상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집값은 전셋값보다 비싸지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현상도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전세대출 대비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정부의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자 서민들의 불안심리와 함께 시장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이슈가 됐던 대출규제는 한시적으로 전세대출과 집담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